



2026. 8. 3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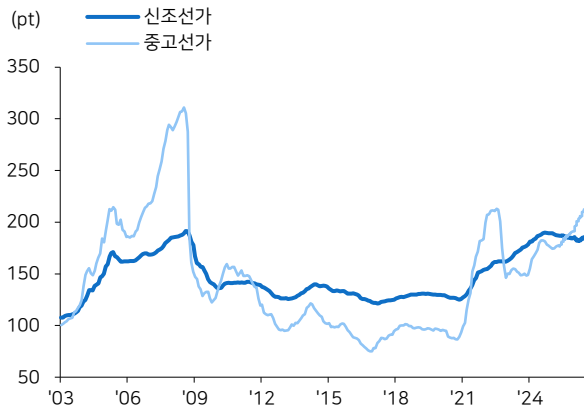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5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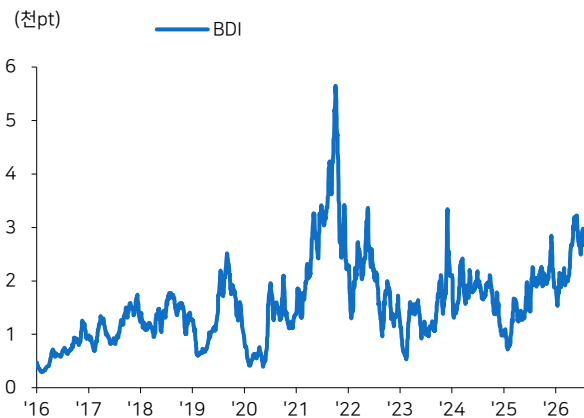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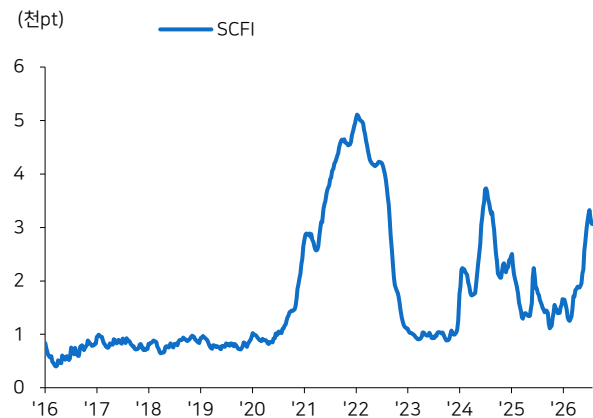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73.0p (+4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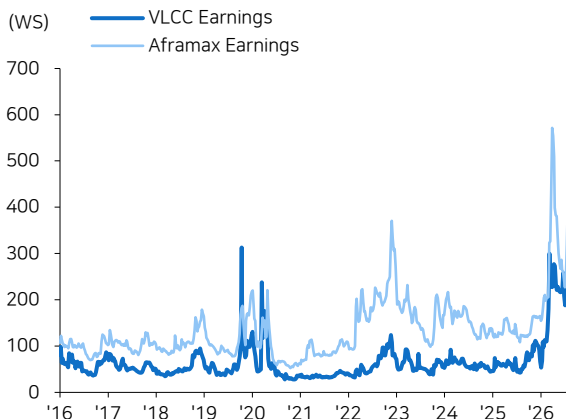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206.0(+143.0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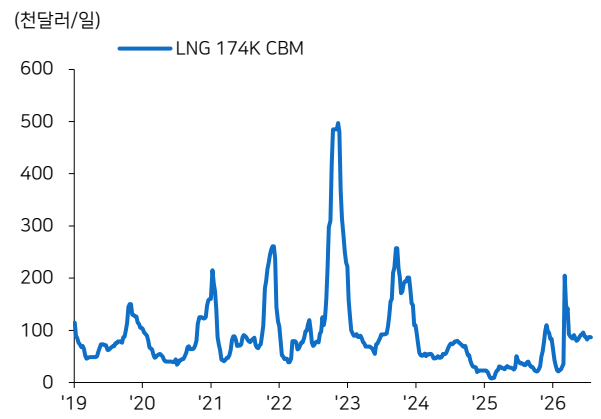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54.9WS (+26.8p WoW)



LNG Spot 운임

79.8천달러 (-6.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오션, 8 조원 규모 'KDDX' 본계약 체결..."2032년 첫 전력화" (뉴시스)

<https://zrr.kr/g4717D>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과 총사업비 약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순수 국내 기술로 7,000톤급 구축함 6척을 확보하며, 이번 사업은 2032년 선도함 전력화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해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선도함에는 국산 핵심 개발 장비 9종이 탑재된다고 알려짐. 한화오션은 최근 전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다층 방어체계, 강화된 사이버 방호체계 및 자동화 기술을 대폭 적용함으로써 기존 구축함보다 생존성과 전투 능력을 높인 차세대 구축함을 구현할 계획으로 전해짐.

美 군함 도입사업 총괄 수장, 한화 필리조선소 전격 방문 (더구루)

<https://zrr.kr/hKf9hZ>

미국 해군 수상함 획득 및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PAE Maritime의 크리스 밀러 대표단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주요 생산 시설을 시찰하고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이번 회동을 통해 양측은 미국 해양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숙련된 기술 인력 양성 아이디어를 활발히 공유하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다졌다고 전해짐.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해상 미사일 시험계측선 건조 등 핵심 국방 및 안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미 간 조선·방산 협력의 중추적 기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알려짐.

韓-칠레, 미래산업 협력 확대...핵심광물-조선해양 협력 (아시아투데이)

<https://zrr.kr/tBCWv2>

한국과 칠레 주요 기업인들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핵심광물과 조선해양, AI, 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은 광물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는 '한·칠레 광물자원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해짐.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홀딩스와 LS, 고려아연 등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화오션과 네이버는 조선해양 및 AI·디지털 기술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고 전해짐.

Hanwha Ocean Holds Keel-Laying of 6th FFX Batch III Frigate for ROK Navy (Naval News)

<https://zrr.kr/LoduW7>

한화오션이 거제조선소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3,600톤급 울산급 배치-III(FFX Batch-III) 호위함 6척 중 마지막 함정인 6번함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보도됨. 충남금오로도 불리는 FFX Batch-III 사업은 기존 노후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번에 기공된 6번함은 내년 2월 진수를 목표로 건조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짐. 해당 함정은 복합 추진체계(CODLOG)와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통합된 마스트, 국산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등을 탑재해 대공·대함·대잠 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한화오션은 향후 첨단 전투체계를 갖춘 FFX Batch-IV 설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짐.

'We're fully utilised': Kirby sees almost no impact from Jones Act waiver (TradeWinds)

<https://zrr.kr/fWqU1a>

Kirby Corp는 미국 Jones Act의 한시적 유예 조치에도 내륙 및 연안 선박의 높은 가동률을 바탕으로 사업상 타격을 거의 입지 않았으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CEO David Grzebinski는 해당 유예 조치가 국가 안보 목적과 무관하게 트레이더들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었다고 비판하며 8월 16일 기한에 맞춘 포괄적 유예의 즉각적인 종료를 촉구했다고 전해짐. 연안 선박 시장의 제한된 공급 속에서 선대의 대부분이 장기 용선으로 묶여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했으며 향후 규제 완화 연장 시 광범위한 방식 대신 특정 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알려짐.

TotalEnergies and ExxonMobil set for momentous change at Papua LNG (Upstream)

<https://zrr.kr/97tnUC>

프랑스 에너지 기업 TotalEnergies가 주도해 온 파푸아뉴기니의 대규모 Papua LNG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현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미국 기업 ExxonMobil로 이양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됨. 이번 운영권 변경은 까다로운 현지 규제 환경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기존 PNG LNG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프로젝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짐. 다만 최종 투자 결정(FID)을 앞두고 토지 소유주 협의회 일시 중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향후 공식 발표와 파트너사 간의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